

청자존대 선어말어미 ‘을’의 이두 표기 ‘白’과 ‘孚乙’*

- 조선 후기 이두 자료를 중심으로 -

이 용**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이두의 ‘白’과 ‘孚乙’이 모두 ‘을’을 표기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보이고 이를 통하여 이두의 독법이 가진 동적인 모습과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두학습서에 나타난 ‘白’과 ‘孚’의 독음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白’과 ‘孚乙’ 표기의 의미·형태적 상관성을 고찰한 뒤에 이들이 보이는 분포 양상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을’을 표기하는 ‘白’과 ‘孚乙’이 모두 ‘을₁’과 ‘을₂’의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 ‘을₁’은 청자존대 선어말어미의 표기이고, ‘을₂’는 ‘청자존대 선어말어미 + 어미의 일부 ‘ㄹ’의 표기이다. ‘을₁’과 ‘을₂’의 표기에 ‘白’이 쓰인 데 대하여 객체존대 선어말어미로부터 내려온 관습과 한자의 표의성을 이용해 존대를 드러내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표기임을 주장하였다. ‘을’의 표기로는 ‘白乙’과 ‘孚’도 있었다. 이러한 독법 추정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한두 차례 언급된 바가 있으나 본격적으로 고찰되지는 못했다. 본고의 결과는 기존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향후 이두의 이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이두, ‘白’, ‘孚乙’, 청자존대 선어말어미, 이두 독법, 이두학습서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白’과 ‘孚乙’ 표기의 의미·형태적 상관성 |
| II. 이두학습서에 나타난 ‘白’과 ‘孚’ | IV. 결 론 |

* 이 글은 2019년 12월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남풍현, 고영근 선생님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참석해 조언을 주셨던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한다. 따로 박성종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한다. 선생님께서는 2020년 10월 17일에 열린 국어사학회 10월 월례강독회에서 특별히 이 글에 대해 교시를 베풀어 주셨다. 한편으로 이 글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낸 『吏讀辭典』을 편찬하면서 토론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이견식 선생님과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견식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 글에 보이는 모든 오류와 잘못은 필자의 것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의사소통교실 객원교수 / leeyonghu@uos.ac.kr

I. 서 론

오늘날 우리가 추정하는 많은 이두 독법은 거의 전적으로 조선후기 이두학습서에 의존하고 있다. 이두학습서에는 이두의 독음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어, 이들 학습서는 이두의 독법 추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두 학습서에 반영된 독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보수적이고 현실 언어와 동떨어져 있다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 이두학습서에 나타난 이두 독법은 의외로 동적인 모습을 지닌다. 단순히 보수적이고 현실 언어와 동떨어져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기에는 당대 언어와 만나 변화하는 양상이 단순하지 않다. 그러므로 올바른 이두 연구를 위해서도 이두학습서에 나타난 독법에 대한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白’과 ‘孚乙’을 살펴 이두학습서의 독법이 보이는 동적인 모습을 고찰하고 이두학습서의 독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제안하게 될 것이다. 실제 조선 후기 이두 자료를 살펴보면 겉으로만 보아서는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두 표기가 같은 형태를 표기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들이 같은 형태를 표기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이해는 이두학습서의 독법이나 조선 후기 이두의 변화를 살피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조선 후기 이두 자료와 학습서에 나타나는 ‘白’과 ‘孚乙’이 동일한 형태를 표기하는 데 쓰이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白’과 ‘孚乙’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기존 업적에서 언급된 바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존의 업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박성종이 다루었던 예문이다.

- (1) 指一歸重 則難免猜摸 易涉牽強是乎乙遣 設令日宅之罪 較重一分 太寬之罪 較輕一分 論其所差 宜不相遠是去乙 // 한 사람을 지목하여 무겁게 하면 근거 없는 의심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건강부회하기 쉽사옵고, 설령 (金)日宅의 죄가 비교적 한 톨 더 무겁고, (朴)太寬의 죄가 비교적 한 톨 더 가볍다고 할지라도 그 차이를 논하면 마땅히 그리 크지 않거늘)《與猶堂全書 欽欽新書 권 10.4》

조선후기 이두 자료에서는 (1)처럼 의미로 보아서는 ‘白’이 쓰여야 할 것 같은데, ‘孚乙’이 쓰이는 예가 나온다. 박성종은 이 예문에 쓰인 ‘是乎乙遣’에 대해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용례라고 보면서,¹⁾ 그 까닭을 ‘이올고/이올꼬’로 읽을 경우 그에 적합한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를 추출하기 어려운 데서 찾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是乎乙遣’는 ‘是白遣’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당연히 ‘是白遣’로 표기되어야 할 자리에 ‘是乎乙遣’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독음에 이끌려 ‘부지불식간에 나온 이표기’로 판단하고 있다.²⁾

1) ‘是白遣’가 동일한 ‘剪跋蕪詞’ 안에 여러 번 쓰였다는 사실도 더불어 밝히고 있다.

정재영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표기와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는 Hulbert(1898)에서 제시된 61개의 이두 항목을 정리하고 기존의 이두 학습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두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었다.

〈표 1〉 Hulbert(1898)의 자료 발췌

	chinese	ltu		Unmun
(10) ³⁾	是𩇛只	i ol kkeui	이올기 ⁴⁾	홀올씨
(16)	是白𩇛只	i sal ol kkeui	이살올씨	홀옵기에
(17)	是𩇛加喻	i ol tūn chi	이올던지	홀엿던지
(24)	是𩇛只以	i ol kkui i	이올끼이	홀올끼로
(28)	是𩇛加尼	i ol dô ni	이올더니	홀엿습더니
(29)	是如是𩇛加尼	i ta iol tô ni	이다이올더니	홀다홀옵더니
(30)	是如是𩇛置	i ta iol tu	이다이올두	그리홀릭두
(43)	爲𩇛只以	ha ol kki ro	홀올끼로	홀옵끼로

정재영은 위의 자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白’으로 표기된 것은 ‘을’로 표기하고, ‘-을-’이 ‘-올-’로 변한 것을 ‘-乎乙-’로 표기하는 것은 다른 이두 학습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자훈전칙(字恤典則)』(1783)에서는 이두의 ‘爲白齊’가 언해문에서는 ‘홀올저’에 대응되고 있음도 언급하고 있다.⁵⁾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白’으로 표기되어야 할 자리에 ‘乎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부지불식간에 나온 이표기’ 또는 ‘다른 이두 학습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것’ 정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이두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의외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현상들을 살펴보면 이런 표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관련 현상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기로 한다.

II. 이두학습서에 나타난 ‘白’과 ‘乎’

1. 이두학습서의 ‘白’

이두학습서에 나타난 훈을 이용한 표기인 ‘白’은 용언이나 선어말어미냐에 따라 독법이 다르게 나타난다.⁶⁾

2) 박성종, 「吏讀吐의 讀法과 그 한글 讀音 표기에 대한 管見」, 『국어학』 90, 2019, 8~9쪽.

3) 이 행에서 제시되는 번호는 Hulbert(1898)와 정재영(1998)에서 정리한 번호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4) 이하 한글 독음은 로마자를 참고해서 필자가 옮긴 것이다.

5) 정재영, 「大韓帝國 時期 西洋人의 吏讀 研究」, 『韓國文化』 22, 1998, 71~72쪽.

이 두 용법에 따른 독법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용언에 나타난 ‘白’을 자음이 후행하는 환경과, 모음이 후행하는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白等 : 畵等(吏文(1658), 典律(1761), 羅麗(1789))

畵든(吏師(18세기 중엽), 吏禱(18세기 이후), 物譜(1802), 吏便(1829))

술든/술둥(吏方(현종))

살등(儒必(1872))

(3) 白是 : 술이(吏師(18세기 중엽)) cf. 白良(望白良尔)

살이(物譜(1802)) cf. 白良(望白良尔)

술리(儒必(1872)) cf. 白乎(是白乎等以), 白良(望白良尔)

(2)는 ‘白’이 용언의 어간으로서 자음 앞에 나타난 용례이다. 어간 ‘白’의 독법으로는 ‘畵, 술, 살’이 보인다. ‘畵’은 음절말 자음군이 온전히 표기된 것이다. 반면에 ‘술’, ‘살’은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종성에서 ‘ㅂ’이 탈락하고 ‘ㄹ’만 남아 있는 것이 표기된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음절말 ‘ㅂ’이 ‘ㅂ’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ㄹ’로 실현되기도 하는데,⁷⁾ 이 점은 근대국어 시기에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음절구조제약이 적용된 후에 ‘ㅂ’이 남는 ‘습’이나 ‘삽’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이는 이두학습서가 중앙어를 반영한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근대국어 시기 중앙어에서는 주로 ‘ㅂ’이 탈락하고 다른 방언에서는 ‘ㄹ’이 탈락하였다.⁸⁾ ‘술’

(6) 본고에서 제시할 이두학습서의 이두토는 고정의, 「이두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口訣研究』 10, 2003에 정리된 것을 참고한 것이다.

(1) 〈羅麗〉: 羅麗吏讀(『古今釋林』 권40 附錄 外篇). 1789년.

(2) 〈物譜〉: 物譜(我東吏讀). 1802년.

(3) 〈儒必〉: 『儒胥必知』. 1872년.

(4) 〈吏文〉: 동국대본 『吏文』. 1658년.

(5) 〈吏方〉: 『五洲衍文長箋散稿』(권48) 語錄辯證說附錄의 吏讀方言. 현종.

(6) 〈吏師〉: 고대본 『吏文大師』. 18세기 중엽.

(7) 〈語錄〉: 『註解 語錄總覽』의 부록 吏文語錄. 1919년.

(8) 〈吏禱〉: 동양문고본 『吏文禱例』(국립도서관 영인본). 18세기 이후?

(9) 〈吏便〉: 『吏讀便覽』(吏讀資料選集 所收). 1829년.

(10) 〈才物〉: 규장각 『才物譜(萬物草)』 夏(권2)의 里讀. 1798년.

(11) 〈典律〉: 규장각(奎4306) 『典律通補』 別編의 吏文(초고본). 1761년.

7) 정연숙은 현대국어 어간말 자음군 중 9개의 어간말 자음군 ‘ㄱ’, ‘ㄴ’, ‘ㄷ’, ‘ㄹ’, ‘ㅂ’, ‘ㅅ’, ‘ㅇ’은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음절말 위치에서 자음 중 한 음은 탈락하고 한 음은 실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① 상대적으로 공명도가 큰 음, ② 설정성을 가진 변자음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조건에 따른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ㄱ, ㄴ (모두 장애음, 변자음) 중자음

b. ㅂ (모두 공명음, 변자음) 중자음

c. ㄷ, ㄹ, ㅅ (공명음) 장애음, 모두 중자음

d. ㄹ, ㅂ, ㅅ (공명음) 장애음, 변자음) 중자음

(d)에서는 조음방법과 설정성에서 모순이 생기는데 ‘ㅂ’이 이 자음군에 속한다. 실현의 양상이 방언에 따라 다른데, 동남방언에서는 조음위치보다 공명도가 우선하므로 ‘ㄹ’로 발음되고 서남방언에서는 공명도보다 조음위치가 우선되므로 ‘ㅂ’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중부방언에서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ㄹ’로 발음되기도 하고 ‘ㅂ’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연숙, 「음절말 자음군 ‘ㅂ’의 발음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을 참조.

8) 홍윤표에 따르면, 중앙어에서는 주로 제2자음인 ‘ㅂ’이 탈락되며 다른 방언에서는 주로 제1자음인 ‘ㄹ’이 탈락하는 경향이 발

과 비교할 때 ‘살’은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났던 ‘· > ㅏ’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살’이 나오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숯 > 술 > 살’로 도식화할 수 있다.

(3)은 ‘白’이 용언의 어간으로서 모음 앞에 나타난 용례이다. ‘白是’은 동사 어간 ‘숯-’과 명사파생 접사 ‘-이’의 결합으로 파악된다. 동사 ‘숯-’은 ‘술복리 하되(龍歌13장)’, ‘술바늘 <능엄 9: 106>’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술이’는 ‘술비’가 ‘술이’로 변화한 것이다. 이처럼 ‘비’이 변화를 갖는 어휘로는 ‘수비 > 수이’, ‘갯가비 > 갯가이’가 있다. ‘술이’가 분철되는 것은 유성후두마찰음 ‘f’를 가졌기 때문이다.⁹⁾ 이두학습서에 보면 ‘白良/술아(吏便(1829))’가 있는데 이것도 근거가 된다. 이 어형은 ‘술바 > 살와 > 살야’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근대국어 시기에도 ‘f’가 있었느냐는 반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문헌들이 고형을 반영한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살이’는 ‘술이’에서 ‘· > ㅏ’의 변화를 반영한 뒤에 ‘ㅏ’가 ‘ㅑ’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ㅏ’가 ‘ㅑ’로 바뀐 것은 19세기 전반기부터 일어난 ‘사 서, 소, 수’와 ‘샤, 셔, 쇼, 슈’의 혼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숯리’의 ‘숯’은 음절말 자음군이 그대로 드러난 표기이다. 이때 음절말 자음군 ‘ㅃ’이 모두 발음되었다고 보아서는 설명이 어렵다. ‘술이’, ‘술아’ 등을 고려하면 ‘ㅃ’은 표기에서만 드러났을 뿐, 실제 발음은 대표음 ‘ㄹ’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뒤에 표기된 ‘리’의 ‘ㄹ’은 중철 표기에 말미암은 것으로 본다. 근대국어 시기의 중철 표기와 관련해서는 같은 문헌에 나오는 ‘爲白有在果/ㅎ숯빋견과’, ‘及良/밋쳐’ 등이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선어말어미 위치에 나타난 ‘白’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용언 ‘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4) 爲白遣 : ㅎ 읍고(吏文(1658))

ㅎ 읍고(才物(1798))

ㅎ 읍고(羅麗(1789))

ㅎ 삶고(物譜(1802))

ㅎ 살고(吏師(일)¹¹⁾(18세기 중엽))

ㅎ 읍고(儒必(1872), 吏師(18세기 중엽), 吏便(1829), 語錄(1919))

ㅎ 읍구(吏襍(18세기 이후))

(4)에 나타난 ‘白’의 독법을 정리하면 ‘숯, 삶, 살, 읍, 읍, 읍, 읍’이 된다.¹²⁾ 우선 ‘숯’은 용언 ‘白’의 영향을 받은 독법으로 추정되는데 용언의 기본형과 그대로 일치한다. 이것은 용언 위치와 선어말어미 위치를 가리지

견되고 있으나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홍운표, 「近代國語의 語幹末子音群 表記에 대하여」, 『국어학』, 1987, 109쪽을 참고.

9) 김경아,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을 참고.

10)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한별, 「국어의 음운 변화 <syV>...>sV에 대한 재고찰」, 『국어학』 72, 2014를 참고.

11) 이 자료는 일본의 高月觀音里 歴史民俗資料館에 소장된 것으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년~1755년) 手澤本이다.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허인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2) 박성종은 독음을 ‘숯’, ‘술’, ‘을’의 세 가지로 보았다. 박성종, 「나의 吏讀 연구의 적바림-吏讀는 왜 공부하는가?」, 국어사학회 10월 월례발표회 발표문, 2020.

않고 ‘ㅍ’을 ‘ㅍ’으로 읽는 관습이 있었고 이 관습이 반영된 표기로 보인다. 후기중세국어에서 선어말어미는 ‘ㅍ’이었는데도 선어말어미에 동요되지 않고 ‘ㅍ’으로 표기된 것은 이 점을 뒷받침해 준다. 또 다른 논거로는 앞으로 다루게 될 ‘ㅍ乙(을)’과의 이표기 관계를 들 수 있다. ‘ㅍ’의 독음을 ‘ㅍ’으로 해서는 절대로 ‘을’과 연관을 지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기술을 통해 밝히기로 한다. 한편 ‘ㅍ’에 대해서는 ‘· > ㅍ’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짧게 기술하고 넘어간다. ‘ㅍ’은 음절말 자음군에서 ‘ㄹ’을 취한 것이다.

이제 ‘ㅍ, ㅍ, 을’의 세 독법이 남는다. 이 중에서 ‘ㅍ’은 중세국어의 객체존대 선어말어미의 이형태 ‘ㅍ’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중세국어에 중앙방언에 존재했던 ‘ㅍ’이 소멸하면서 근대국어에서 ‘ㅍ’의 후대형으로 ‘ㅍ’이 생겼는데 이에 이끌린 표기로 추정된다.¹³⁾ 이때 ‘ㅍ’을 어떻게 ‘ㅍ’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ㅍ’의 전통적 이두 독음 ‘ㅍ’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 ‘ㅍ’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ㅍ’의 이두 독법이 ‘ㅍ’이라면 ‘ㅍ’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ㅍ’은 이상하지 않다.

‘ㅍ’은 ‘ㅍ’과 연관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는데 ‘ㅍ’이 ‘ㅍ’에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자료도 ‘ㅍ’이 ‘ㅍ’에 앞선다. 이것은 중세·근대국어 문헌에서 ‘ㅍ’이 먼저 출현하고 ‘ㅍ’이 출현하는데 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ㅍ’과 관련된 것이 ‘ㅍ’이라면 ‘ㅍ’은 ‘ㅍ’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¹⁴⁾

마지막으로 ‘을’을 보기로 한다. ‘을’은 ‘ㅍ’에서 ‘ㄹ’이 남고 ‘ㅍ’이 탈락한 어형이다. 현실 언어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을’이 ‘ㅍ’의 독법으로 제시된 것은 ‘ㅍ’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영만은 이두 독법에 현실 언어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한다. 현실의 언어와 별개로 이두의 독법에 ‘ㅍ’이 존재하였고, 이 ‘ㅍ’이 지역에 따라서는 ‘을’로도 발음하고 ‘ㅍ’으로도 발음하기에 나타난 표기로 파악하고 있다.¹⁵⁾

이 현상에 대해 이두의 독음과 현실 언어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다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 첫째, 이두의 독법이 현실 언어와는 별개로 따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ㅍ, ㅍ’의 존재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는데, 이 두 표기는 이두 독법이 현실 언어와 달랐으리라고 가정할 때 비로소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들이 ‘ㅍ, ㅍ’으로 표기되었지만 표기만 그러할 뿐 실제 발음은 ‘ㅍ, ㅍ’이 아니었겠느냐는 반

13) 중세국어에서 객체존대를 담당했던 ‘-ㅍ-’이 ‘-ㅍ-’으로 바뀌면서 청자존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데, 이 사실이 본고의 논지 전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14) ‘ㅍ’의 형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자존대 ‘ㅍ’의 이형태인 ‘오’의 형성에 따른 유추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청자존대 ‘오’는 15세기 국어 ‘-ㅍ-’의 이형태 중 하나인 ‘-ㅍ-’이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ㅍ > ㅍ > ㅍ > ㅍ’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오’가 자음어미와 결합한 ‘ㅍ’이 ‘ㅍ’으로 변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오’와 ‘ㅍ’의 뒤섞임 현상 즉 ‘혼효’에 의한 형성으로 보는 것이다. 용언의 어간 활용에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는 두 개의 활용형이 통합되는 것(돕 ~ 도우 → 도읍)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ㅍ’을 ‘오’와 ‘ㅍ’의 혼효로 보는 것이다. 김영진·정경재, 「-사음- 계열 선어말어미의 공시적 처리 방안, 한국어학 46, 한국어학회, 2010, 17쪽을 참고.

15) 김영만은 《典律通補》와 《羅麗吏讀》에 나타나는 ㅍ의 독법을 조사하여 ㅍ이 ‘ㅍ, 을’ 등으로 주음된 것은 당시의 언어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ㅍ’이 ‘ㅍ’으로 읽힌 것은 고대어의 반영이며, 근대어에 이르기까지도 이 전통적인 독법이 남아 있었던 반면, 국어에서는 이미 15세기부터 ‘ㅍ’이 ‘ㅍ’으로 바뀌고 ‘ㄹ’이 탈락되어 근대 이후로 내려오면 ‘ㅍ’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두의 독법에서도 현실 언어의 반영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ㅍ(ㅍ)ㅍ’의 변천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만, 「儒胥必知의 吏讀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7쪽.

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두학습서를 보면 이두 독음으로 ‘읍, 읍’은 나타나지 않고 ‘을’만 출현한다는 점은 이를 반박한다. 둘째, 당시의 이두사용자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이두의 언어를 구분하고 이두를 사용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읍’을 읽을 때는 현실 언어의 규칙을 적용해 ‘을’로 발음 하면서 의미를 새길 때는 청자존대 선어말어미 ‘읍’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¹⁶⁾ 다음은 ‘白’이 관형사형 어미의 표기에 쓰인 예이다.

(5) 가. 爲白所置 : ㅎ을바두<羅麗(1789)>

나. 爲白乙所 : ㅎ을바<物譜(1802)>

(5가)의 ‘爲白 所置’는 ‘白’이 ‘오’와 관형사형 어미 ‘-르’의 결합형을 표기하는 데 쓰이고 있다. <羅麗>에서 는 이 위치에 있는 ‘白’의 기본적인 독법이 ‘을’이다. 이 문헌에서 ‘爲白遣’의 경우에는 ‘ㅎ을고’로 독법이 달려 있다.

그런데 (5나)의 예는 ‘白’을 ‘오’에 대응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爲-ㅎ’, ‘白-오’, ‘乙-르’, ‘所-바’에 대응시키면 글자의 수와 배열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白’의 처리이다. 이제까지 살펴온 바에 따르면 ‘白’의 독법 중에 ‘오’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예를 들고 ‘白’의 독법 중에 ‘오’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유일례에 필요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순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¹⁷⁾ 둘째, ‘오’를 표기하는 글자로는 ‘乎’가 있는데 굳이 ‘白’을 쓰는 이유가 적절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예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白’의 훈을 이용해 ‘을’을 표기한다고 보고 ‘乙’은 말음첨기, 즉 음성 보충자로 파악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다.¹⁸⁾ 이 문헌에 드러난 ‘白’의 독법을 보면 선어말어미 위치에서는 ‘읍’과 ‘을’만이 존재한다. ‘읍’의 예로는 ‘爲白遣(ㅎ을고)’가, ‘을’의 예로는 ‘是白遣(이을고)’, ‘是白齊(이을저)’가 있다. 이것은 ‘爲白遣’의 경우에는 비록 ‘白’의 독법을 ‘읍’으로 달았다 할지라도 실제 독음은 ‘을’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爲白乙所’에서 ‘白乙’은 선어말어미 ‘을’과 말음첨기 ‘乙’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2. 이두학습서의 ‘乎’, ‘乎乙’

이두학습서에 의하면 ‘乎’의 독법은 ‘오’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16) 이처럼 조선후기 이두 사용자들이 이두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은 넓은 의미의 양충언어 사용자라고 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17) 이 예는 이두학습서에서 ‘白乙’이 관형사형 어미에 쓰이는 유일례로 보인다.

18) 음성 보충자는 앞의 자소에 이미 주어진 음성 정보를 반복하는 자소를 이른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 외(역), 『언어학으로 풀어본 문자의 세계』, 역락출판사, 2017, 147쪽(Henry Rogers,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Approach*, Oxford: Blackwell, 2004)을 참조할 수 있다.

- (6) 가. 爲白乎詠: ㅎ올보며<羅麗(1789)>, ㅎ웁으며<才物(1798)>, ㅎ샅오며<物譜(1802)>, ㅎ웁오며<儒必(1872)>, 吏師(18세기 중엽),¹⁹⁾ 吏便(1829))
 나. 是白乎乃/이웁오나<儒必(1872)>, 爲乎尼/ㅎ오니<吏便(1829)>, 敎是乎矣/이시오되<語錄(1919)>
 다. 各乎/씩로<吏便(1829)>, 自乎/질로<吏便(1829)>, 迫乎/조초<羅麗(1789)>

먼저 (6가)를 보면 ‘乎’의 독법이 ‘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ㅎ샅오며’, ‘ㅎ웁오며’에서는 ‘乎’와 ‘오’의 대응이 눈에 잘 들어온다. ‘ㅎ올보며’<羅麗(1789)>는 ‘ㅎ웁오며’가 연철되어 표기된 것이다. ‘ㅎ웁으며’<才物(1798)>에서는 ‘乎’가 ‘으’에 대응되고 있지만, ‘ㅎ올보며’를 참조하면 ‘으’는 ‘오’의 잘못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乎’의 독법이 ‘으’에 대응되는 다른 예는 이두학습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6나)와 (6다)의 예들 역시도 ‘乎’와 ‘오’의 대응을 잘 보여주고 있다.

- (7) 가. 爲乎: ㅎ온<吏文(1658)>, <羅麗(1789)>, 物譜(1802), 語錄(1919), 儒必(1872), 吏便(1829), 典律(1761))
 나. 望良白去乎/바라웁거온<吏師(18세기 중엽)>, 吏便(1829), 吏襍(18세기 이후), 敎是白乎所/이사웁온바<吏便(1829)>, 無乎事/어오론일<吏師(18세기 중엽)>, 무온일<吏便(1829)>, 使內白如乎/바리웁다온<儒必(1872)>, ㅂ라웁다온<吏便>
 다. 爲乎所: ㅎ올배<吏師(18세기 중엽)>, ㅎ올양으로<典律(1761)>

(7가)는 ‘乎’가 ‘爲(ㅎ)’와 결합한 예로, 전부 독법이 ‘온’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두학습서에서 보면, ‘乎’의 독법으로 ‘온’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乎’의 독법으로 ‘온’을 상정해 볼 수 있다. (7나)의 예들은 ‘온’으로 읽히는 용례로 그 중 극히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빈도로만 본다면 ‘乎’를 ‘온’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 첫째, (7다)와 같은 반례를 만나게 되고 만다. (7가)의 ‘乎’를 ‘온’으로 읽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7다)의 ‘乎’ 역시도 ‘온’으로 읽어야 하는데 독법이 ‘올’이라는 점에서 이내 모순이 생기고 만다. ‘온’을 기본 독법으로 본다면 ‘온’이 ‘올’로 대체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이두에서는 이런 식의 대치가 일어나는 다른 표기의 예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올’을 기본 독법으로 내세울 수도 없다. ‘온’을 기본 독법으로 했을 때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이 예들에서 보이는 ‘乎’의 기본 독법을 ‘온’으로 상정하면, ‘오’는 ‘온’에서 ‘ㄴ’이 삭제되어 나온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온’에서 ‘ㄴ’이 삭제되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설사 삭제되어 읽히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일례라는 점이 걸린다. 그보다는 ‘오’를 기본 독법으로 보고 필요에 따라 ‘ㄴ’ 또는 ‘ㄹ’을 받쳐 읽는다고 보는 편이 설명도 가장 간결하고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19) 일본의 高月觀音里 歴史民俗資料館 소장본에는 ‘ㅎ샅오며’로 되어 있어 매우 흥미롭다.

실제 이두학습서에서 보면 ‘ㄴ’이나 ‘ㄹ’이 필요한 자리에 ‘隱’이나 ‘乙’을 써서 따로 표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

(8) 가. 爲乎乙所 : 하을싸(儒必(1872))

호을배(吏師(18세기 중엽))

나. 爲乎乙喻 : 호을지(儒必(1872), 吏襍(18세기 이후))

(9) 가. 爲隱所 : 한바(物譜(1802))

흔바(吏師(18세기 중엽))

나. 是隱去向入 : 인가앗드러(儒必(1872))

(8가)에서는 동명사어미 ‘ㄹ’에 해당하는 ‘乙’을, (8나)에서는 의문형어미 ‘ㄹ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乙’을 보충하여 표기하고 있다. (9가)에서는 동명사어미 ‘ㄴ’에 해당하는 ‘隱’을, (9나)에서는 의문형어미 ‘ㄴ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隱’을 보충하여 표기하고 있다. 다만 ‘乎’ 뒤에 ‘隱’을 보충한 예가 보이지 않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표기법상의 유효성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爲乎所’와 같이 반드시 동명사어미가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ㄴ’에 해당하는 ‘隱’을 보충한 예는 보이지 않고 ‘乙’을 보충한 예만 보이는데 이것을 유효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동명사어미의 표기가 생략되어 보충해서 읽을 때는 ‘ㄴ’을 보충해서 읽는 것이 무표적이고 ‘ㄹ’을 보충해서 읽는 것은 유효적이기에 ‘乙/ㄹ’을 보충해서 읽는 용례만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⁰⁾

Ⅲ. ‘白’과 ‘乎乙’ 표기의 의미·형태적 상관성

조선후기의 이두학습서를 검토해 보면 ‘白’과 ‘乎乙’이 모두 독음 ‘을’을 표기하는 데 쓰인다. 그런데 ‘을’을 표기하는 데는 이 두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추가할 표기가 둘 더 있다. ‘白’의 경우에는 뒤에 말음 ‘乙’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고, ‘乎乙’의 경우에는 ‘乙’이 쓰이지 않고 ‘乎’만으로 쓰이는 예가 있다. 이두에서 동명사어미는 보충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동명사어미가 아니더라도 보충해서 읽는다. ‘白’과 ‘乎’은 기능에 따라 ‘을’ 전체가 온전히 청자존대 선어말어미로 쓰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두 종류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오’는 청자존대 선어말어미를 표기하는 데 쓰이고 ‘ㄹ’은 어미의 일부를 표기하는 데 쓰인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전자는 ‘을₁’, 후자는 ‘을₂’로 칭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0) 동명사어미 표기는 이두 표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동명사어미는 표기에서 자주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생략되는 경우에 ‘ㄴ’을 보충할 것인지 ‘ㄹ’을 보충할 것인지가 애매한 경우도 많다. 생략된 표기는 ‘ㄴ’이 무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과제로 남긴다.

1. 청자존대 선어말어미 표기

‘을’의 예로 ‘을고’를 다루기로 한다. 이 ‘을고’는 한글문헌의 ‘을고’에 대응된다. 이때 ‘을고’의 표기로는 ‘乎乙遣’, ‘乎遣’, ‘白遣’, ‘白乙遣’의 4가지가 쓰인다. 이것들 하나하나의 용례를 가져와 의미 해석과 함께 살펴 보기로 한다.

- (10) 가. 世子敎是 氣候終始安寧/是白遣 大君 /亦爲 平安/爲白乎於 //世子께서 기후 내내 안녕하시
을고 大君 또한 平安하셨사오며 <1641년 審陽狀啓 辛巳년 九月二十五日>
나. 醬·鹽·魚鮮·柴木等, 每五日隨其所入排給是白乙遣 // 장(醬)·염(鹽)·어선(魚鮮)²¹⁾·
떨나무 등을 매달 5일에 그 들어온 것에 따라 배급하옵고 <各司謄錄 20, 全羅左水營啓錄
1, 1851년 01월23일(음)>

(10가)는 이제까지 많이 접해왔던 ‘是白遣’의 예이다. 이때 ‘白’은 청자존대의 기능을 가진다. 같은 문장에 서 나오는 ‘爲白乎於’의 ‘白乎’ 역시 청자존대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예문이 나오는 『審陽狀啓』는 조선 후기 청나라 심양에서 소현세자 등이 본국에 올린 장계를 모아 엮은 것으로, 대부분의 장계는 세자시강원의 재신(宰臣)이 본국에 있는 승정원에 올린 것이다. 화자는 재신이고 청자는 승정원이며, 용언 ‘安寧’과 ‘平安’을 동사로 갖는 구문에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白’은 청자존대의 기능을 갖고 쓰이고 있다.

(10나)는 ‘白’에 말음 ‘乙’을 첨기하여 ‘을’을 표기하고 있는 예를 가져온 것이다. 말음 첨기의 예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白’의 독음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예문의 화자는 전라좌수사 ‘이조연(李肇淵)’이고 청자는 상위 기관인 승정원이다. 전라좌수사가 상위 기관인 승정원에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을’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有此殺變 而不卽報官 不可不嚴懲/是乎乙遣 高雲日/段 身爲鄉品 代寫千義之訃書 製給李女之訴牒 其在獄體 不可無懲/是乎於 夢世之母及夢同之子得貴/段 雖出於各人之招 而既無關係 且非緊援/分叱不喻 實有母證子子證父之嫌 故不敢取招/是乎遣 其餘諸人 別無可問之端 // 이러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도 관(官)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옵고 고일운(高日雲)은 향품²²⁾의 신분으로서 천의(千義)의 부서(訃書)를 대신하여 썼고, 이녀(李女)의 소첩(訴牒-소장(訴狀))을 지어 주었으니 옥체(獄體)로 볼 때 징벌이 없을 수 없으며, 몽세의 어머니 및 몽세의 아들 득귀(得貴)는 비록 여러 사람의 초사에 나타났으나 관계가 없고 또 중요한 증거가 아닐 뿐 아니라, 실은 어머니가 자식을 증언하고, 자식이 아버지의 허물을 증언함이 있으므로 감히 문초하지 못한 일이옵고 그 나머지 여러 사람은 별로 물을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하였다). <1822년 欽欽新書 5 祥刑追議 15 經久之檢 1>

21) 말리거나 절이지 않은 고기.

22) 향품(鄉品): 지방의 품계(品階)를 가진 관원.

(11)은 《흙흙신서》의 ‘상형추의’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상형추의는 정약용이 정조가 심리하였던 살인 사건 중에서 142건을 골라 정리한 것이다. 수령이 검안하고 그 결과를 상위 기관에 올리는 글이다. 不可不嚴懲/是乎乙遣에서는 ‘是乎乙遣’가 보이고 ‘故不敢取招/是乎遣’에서는 ‘是乎遣’가 보인다. ‘是乎乙遣’는 완전한 형식이고 ‘是乎遣’는 ‘乙’의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화자는 수령이고 청자는 상위 기관이며, 객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의 ‘乎乙’과 생략 표기인 ‘乎’는 한글문헌이라면 청자존대 선어말어미 ‘을’이 기대되는 자리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 ‘白’은 보이지 않고 ‘乎乙’이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12) 가. 故로 愚昧所使에 未及告官하고 急請隣人金順甫·李興云하야 使之趁速出埋于家後李召史田畔이올고 // 그러므로 우매한 소치로 미처 관에 고하지 않고 급히 이웃에 사는 김순보와 이흥운에게 청하여 빨리 내다 집 뒤 이 소사(李召史)의 밭두둑에 매장하였사옵고 《各司謄錄 5, 京畿道來去案 2, 1899년 2월》²³⁾

나. 草記內辭意及批旨內辭意, 奉審施行向事是乎乙只, 枚舉議案事意, 具由論報于廚院是乎乙加尼 // 초기(草記)의 내용과 비답의 내용에, “명을 받들어 시행할 일”이라고 하엿사옵기에, 의안(議案)의 의미를 일일이 거론하여 사유를 갖추어 논해 주원(廚院: 사옹원의 별칭)에 보고하였사오니 《各司謄錄 忠淸道 來關 1894년 11월》

(12가, 나)는 『각사등록』에서 가져온 것이다. 『각사등록』에 정리된 문서들에서는 이두가 대개 한자로 적혀 있지만 건양, 광무 연호를 가진 문서들에서는 이두가 한글로 적히고 있는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청자존대 선어말어미가 ‘을’로 적혀 있어 주의를 끈다. 먼저 (12가)는 광무(光武) 3년에 발행된 검안(檢案) 문서이다. 발신자는 陰竹 군수인 이병덕(李秉德), 수신자는 외부대신으로 되어 있다. 예문은 음죽 군수인 이병덕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립을 심문하는 장면이 문서에 인용된 것을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는 화자인 이성립이 청자인 이병덕이 군수이기 때문에 청자존대 선어말어미를 쓰고 있다.

(12나)는 두 가지 목적으로 가져온 예문이다. 첫째, (12가)의 자료에서 멀지 않은 1894년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두 문서가 한자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함이다. 『각사등록』에는 다양한 문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이두 문서가 한자로 기록되고 있었다가 1896년부터는 한글로 기록되고 있다. 일반 대중의 언어생활에서는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을’이 나오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이전에 한자로 이두를 기록할 때 ‘乎乙’ 또는 ‘白’로 썼을 법한 것이 ‘을’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검양의 선어말어미 ‘을’이 다른 어미와도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乎乙’이 각각 ‘只’, ‘加尼’와 결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두 자료에서 ‘只’는 현대국어의 연결어미 ‘-기에’처럼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용법을 가지고 있었다. ‘을’이 다른 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제시하게 된다.

23) (12가)의 번역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http://db.history.go.kr/>)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다만 (12나)의 경우에는 원문의 ‘廚院’이 번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보충하였다.

2. 청자존대 선어말어미와 어미 일부 ‘ㄹ’ 결합형의 표기

이번에는 ‘白’과 ‘乎乙’로 표기되는 ‘을’이 청자존대 선어말어미 ‘오’와 ‘ㄹ’을 가진 어미의 일부를 표기하는 모습을 이두 자료에서 찾아 볼 것이다. 그 예로 청자존대 선어말어미 ‘오’와 의문형 종결어미 ‘ㄹ가’의 결합인 ‘을가’를 가져와 살펴보기로 한다. 그 표기로는 ‘白可’, ‘乎乙可’, ‘乎可’의 3가지가 쓰인다. 이 표기들의 용례를 가져와 의미 해석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3) 가. 今則抽用於戰地 恐有死傷/是白可 悶慮無可奈何/是白齊 // 이제 전쟁터에서 사용하므로 죽거나 다치울까 두려워 민망하고 걱정스러우나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1641년 瀋陽狀啓 辛巳年 9月初10日>

나. 代遠年久之後 幸其熹迷/是乎乙可 敢生冒占之意 // 대수가 멀어지고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는 그것(사실관계)이 희미해졌사울까 하여 감히 (불법으로) 점유할 마음을 내게 되었고 <1675년 奴洪烈議送>

다. 執持後 錢十五兩 出給/是乎乃 日後 或有雜談之事/是乎可 緣由 仰訴爲白……잡아서 지닌 후에 錢 15냥을 출급하오나 나중에 혹 쓸데없는 말을 하는 일이 있사울까 하여 연유를 우러러 아뢰옵…… // <연도미상 癸巳年 禮女縣 立旨>

(13가)는 ‘白可’의 독음을 ‘을가’에 대응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심양장계』에 수록된 장계의 대부분은 세자시강원의 신하가 승정원에 올린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전반적으로 청자존대 ‘白’의 출현 빈도가 매우 높다. ‘白可’에서의 ‘白’ 역시도 문맥상 청자존대로 쓰인 것이다. 즉, ‘白可/을가’에서 ‘오’는 청자존대의 ‘오’에 해당한다. 이제 ‘ㄹ’의 처리가 남는데, ‘ㄹ’은 의문형 종결어미 ‘(으)ㄹ가’의 ‘ㄹ’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뒤에 용언 ‘두렵다’가 나오므로 문맥상 의문형어미가 오면 자연스럽다. 또한 ‘을가’가 의문형어미라는 점에서 형태 구성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럽다. 반면에 ‘白可’의 독음을 ‘을가’로 하면 형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어렵고 문맥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을가’는 한글 문헌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구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용례에서의 ‘白可’는 ‘을가’를 표기하는 데 쓰였고 ‘白’의 독음이 ‘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13나)는 ‘是乎乙可’의 예로, 이 이두토는 조선후기 자료에 많이 나온다. 여기서 ‘乎乙’은 청자존대의 선어말어미 ‘-오-’와 의문형어미 ‘-ㄹ가’의 ‘ㄹ’이 결합한 것을 표기하고 있다. (13다)의 ‘是乎可’는 ‘是乎乙可’에서 ‘ㄹ’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혹 ‘隱’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乎可’가 문맥상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ㄹ’의 표기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나중에’의 뜻을 지닌 부사어 ‘日後’는 이를 뒷받침한다.

3. ‘白’과 ‘乎乙’의 동일 형태 표기 생성과 양상

여기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白’과 ‘乎乙’이 같은 것을 표기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먼저 ‘白’의 독음이 ‘을’으로 반영된 이두학습서가 있는데, 이 ‘을’의 존재는 ‘白/을’과 ‘乎乙/을’의 연결을 설명하는 실마리가 된다. ‘을’은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을’로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爲白遣’에 대한 이두 독법 ‘하을고’〈羅麗(1789)〉는 ‘白’이 실제로도 ‘을’로 발음되었음을 잘 알려준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사등록』에 수록된 검안 문서의 한글 이두 ‘이을고’도 좋은 증거가 된다.

이두의 ‘乎乙/을’을 청자존대의 선어말어미로 쓴 이두사용자들은 이두의 청자존대 ‘白’을 ‘을’로 읽을 때도 이두지식에 의해서 이것이 선어말어미 ‘을’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전하는 한글 자료에서 ‘을’이 청자존대로 쓰인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白’의 음을 ‘을’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두사용자가 일상 생활할 때의 언어와 달리 이두를 읽을 때는 전래 이두음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의문형 종결어미 ‘白可/을가’에 쓰이는 ‘白’도 이러한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청자존대의 ‘白’은 훈차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도 의문형 종결어미 ‘白可’에 나오는 ‘白’은 조금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白’은 훈독과 훈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의문형 종결어미 ‘ㄹ’은 훈가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白’과 ‘乎乙’의 상호 교체적 표기 양상을 〈표 2〉, 〈표 3〉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을의 분포

유형	전반부	후반부	현대어역	관련토
I	白	遣	을고	等は白遣, 令是白遣, 捧上爲白遣, 分叱白遣, 不冬爲白遣
	白乙	遣	을고	是白乙遣
	乎乙	遣	을고	敎是乎乙遣/敎是乎遣, 上使爲乎遣, 上下是乎遣, 捧上是乎遣, 是如是乎乙遣/是如是乎遣, 是如爲乎乙遣, 是乎乙遣/是乎遣, 爲乎乙遣
	乎	遣	을고	敎是乎遣, 是如是乎遣, 是乎遣, 亦是乎遣, 爲乎遣
II	白	只	을기에	是白只
	乎乙	只	을기에	是如是乎乙只, 是乎只, 是乎乙只, 向事是乎乙只
	乎	只	을기에	是乎只
	白	去乃	을거나	爲白去乃
	乎乙	去乃	을거나	是乎去乃
	乎	去乃	을거나	是乎去乃
	白	去乙	을거나	敎味白俵是白去乙, 爲白去乙, 知不得是白去乙

유형	전반부	후반부	현대어역	관련토
	乎乙	去乙	옴거늘	是乎乙去乙
	乎	去乙	옴거늘	是乎去乙
	白	加尼/等尼/如尼	옴더니	白加尼, 白等尼, 白如尼
	乎乙	加尼/等尼/如尼	옴더니	是乎乙加尼/是𠵿加尼, 是乎乙等尼, 是乎乙如尼
	乎	加尼/如尼	옴더니	是乎加尼, 是乎如尼
	白	加喻	옴던지	是白加喻
	乎乙	加喻/加隱喻	옴던지	是乎乙加喻/是𠵿加喻, 是乎乙加隱喻
	乎	加喻/加隱喻	옴던지	是乎加喻, 是乎加隱喻
	白	如可	옴다가	爲白如可
	乎乙	如可	옴다가	是乎乙如可/是𠵿如可
	乎	如可	옴다가	是乎如可
	白	在果	옴거니와	是白在果, 爲白在果
	乎乙	在果	옴거니와	上使爲𠵿在果, 爲乎乙在果
	乎	在果	옴거니와	爲乎在果
Ⅲ	白	齊	옴니다	爲白齊
	白乙	齊	옴니다	爲白乙齊
	乎乙	齊	옴니다	是乎乙齊/是𠵿齊
	白	乎矣	사오되	亦爲白乎矣
	白乙	乎矣	사오되	是白乙乎矣
	乎乙	乎矣	사오되	是𠵿乎矣
Ⅳ	白	去等	옴거든	無白去等, 白去等
	乎乙	去等	옴거든	是乎乙去等/是𠵿去等
	白	去乎	옴거니	爲白去乎
	乎乙	去乎	옴거니	爲𠵿去乎
	白	如乎	옴던	爲白如乎
	乎乙	如乎	옴던	是乎乙如乎
Ⅴ	乎乙	只以	옴기로	爲乎乙只以
	乎	只以	옴기로	是乎只以

을의 표기와 관련해서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포를 보면 ‘白, 白乙, 乎乙, 乎’ 바로 앞에 선행하는 이두토로는 용언의 ‘爲/𠵿’와 계사 ‘是/이’, 존칭의 ‘敎是/기시’ 셋밖에 없다. 그러므로 분포에

대해서는 후행 이두토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먼저 Ⅰ 유형은 청자존대 선어말어미 표기로 ‘白’, ‘白乙’, ‘乎乙’, ‘乎’의 4가지 표기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후행 이두토로 연결어미 ‘邲’가 오는 경우밖에 없다. 용례가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다.

Ⅱ 유형은 4가지 이표기 중 ‘白乙’이 빠지는 것이다. 후행하는 이두토의 결합양상을 보면 이 유형에 속하는 이두토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乙’은 이른바 말음첨기를 한 것으로, ‘乙’이 없더라도 독법을 알고 있다면 읽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4가지 이표기 중 ‘白’이 후행 이두토와의 결합에서 가장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Ⅲ 유형은 4가지 이표기 중 ‘乎’가 빠지는 것이다. 사실 동명사어미가 아니더라도 ‘ㄹ’을 받쳐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어색한 면이 있다. 후행하는 이두토로는 ‘齊’와 ‘乎矣’가 있다. ‘齊’는 종결어미, ‘乎矣’는 연결어미이다. 이 중 연결어미 ‘乎矣’의 경우에는, 이표기 ‘乎’와 ‘乎矣’의 표기상 결합을 그대로 드러내면 ‘乎乎矣’가 되어 매우 어색한 형태가 된다. 어쩌면 ‘乎乎矣’가 없는 것은 이 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분포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Ⅱ 유형보다 못하다.

Ⅳ 유형은 Ⅱ 유형에서 보이지 않는 ‘白乙’ 표기와 Ⅲ 유형에서 보이지 않는 ‘乎’ 표기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후행하는 이두토로는 ‘去等’, ‘去乎’, ‘如乎’이 있다. 그리고 Ⅴ 유형은 ‘乎乙’, ‘乎’만이 보이는 것으로 ‘白’으로 표기된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제한된 표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우연의 소치로 남기고자 한다.

〈표 3〉 을₂의 분포

전반부	후반부	현대어역	관련토
白	可	올까	是白可
乎乙	可	올까	是乎乙可, 爲乎乙可, 爲乎乙去
乎	可	올까	爲乎可向入
白	喻良置	올지라도	是白喻良置, 是如爲白喻良置, 爲白喻良置
乎乙	喻良置	올지라도	是如爲乎乙喻良置, 是乎乙喻良置
乎	喻良置	올지라도	乎喻良置, 是如爲乎喻良置, 是乎喻良置
白	喻	올지	是白喻
白乙	喻	올지	是白乙喻
乎乙	喻	올지	是乎乙喻

‘을₂’에 속하는 이두토로는 세 가지밖에 없다. ‘올가’, ‘올지라도’, ‘올지’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올가’, ‘올지라도’의 표기와 관련해서는 ‘白’, ‘白乙’, ‘乎乙’, ‘乎’의 4가지 이표기 중 ‘白乙’이 보이지 않는다. ‘을’

표기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는 Ⅱ 유형이 있었는데,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Ⅱ 유형이 가장 많았다. ‘올’ 표기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나타난 양상이 이표기 중 ‘孚’가 보이지 않는 Ⅲ 유형이었는데, ‘올지’의 표기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올’의 표기 방안으로 ‘白’, ‘白乙’, ‘孚乙’, ‘孚’의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호되는 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표기가 있음을 암시한다. <표 2>와 <표 3>을 종합해 볼 때, ‘올’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이표기 중 ‘白乙’이나 ‘孚’는 상대적으로 비선호되는 표기이다. 아마도 ‘白乙’은 ‘白’의 독음만 알면 읽는 데 무리가 없는데 말음첨기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孚’는 ‘孚乙’에서 ‘乙’을 생략한 표기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후자는 특히 어미의 일부라는 점에서 동명사어미를 생략 표기하는 것과는 무게가 다를 듯하다.

마지막으로 ‘올₁’과 ‘올₂’ 공히 ‘孚乙’로 표기해도 되는데 굳이 ‘白’을 써서 표기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로 한다. 첫째, 전통적 관습과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白’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객체존대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이 형태가 청자존대 선어말어미로 변화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자존대 선어말어미인 ‘올’의 경우에 ‘孚乙’은 나중에 독음으로 인하여 생긴 표기로 보면 된다. ‘올’의 경우에는 ‘白’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러한 역사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자가 지닌 표의성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올’에서는 ‘白’보다 오히려 ‘孚乙’이 자연스럽다. 하나의 글자 ‘白’으로 두 개의 형태에 분리하여 표기하는 방법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럼에도 ‘올’의 표기에 쓰였을까?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白’은 서사자의 입장에서는 훈차이긴 하나 독자의 입장에서는 훈독과 훈가를 동시에 이용하는 독특한 표기 방식이 되고 만다. ‘白/올’에서 ‘오’에 해당하는 부분은 훈독에 이용되고 ‘ㄹ’에 해당하는 부분은 훈가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표기를 채택한 것은 한자가 지닌 표의성을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孚乙可’에서는 존대의 의도가 잘 보이지 않지만 ‘白可’에서는 존대의 의도가 얼른 들어온다. 이것은 표의문자로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겠다.²⁴⁾

IV. 결 론

이 글에서는 이두의 독음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白’과 ‘孚乙’이 같은 형태를 표기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白’과 ‘孚乙’은 둘 다 ‘올’을 표기하는데, 청자존대 또는 의문의 종결어미 ‘올가’의

24) 이와 관련해서는 『儒胥必知』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참고할 수 있다.

大抵吏吐 臣告君 賤告貴 則皆加白字 又用教是等語 是字爲字 隨勢改換爲好 又或做合兩項吏吐 成一語脈 亦無妨行用吏吐 // 대저 이두란 신하가 임금에게 고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고하는 경우 모두 ‘白’을 더하거나 ‘教是’ 등의 말을 쓴다. ‘是’자와 ‘爲’자는 문맥에 따라 적절히 바꾸어 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간혹 두 항의 이두를 합하여 한 어구로 만들어도 무방하다.

일부를 표기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이처럼 전혀 연관될 것 같지 않은 두 표기가 같은 형태를 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두학습서의 독음 ‘白/을’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을’이 음절구조제약에 따라 ‘을’으로 실현될 수도 ‘을’로도 실현될 수도 있는데 이두학습서에 독음이 ‘을’로 달린 예가 나타난다. 이 ‘白/을’의 존재가 ‘乎乙’과 ‘白’의 관계를 밝히는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의문형어미의 경우 ‘乎乙可’를 써도 되는 데 ‘白可’를 쓰는 것은 ‘白’의 표의성을 이용해 존대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을’이라는 발음을 가진 청자존대 선어말어미가 있었을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을’은 이두에 존재하는 독특한 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ㅁ’ 중 ‘ㄴ’이 실현되는 것은 실제 언어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후기의 이두사용자들은 실제 언어 생활에서의 언어와 이두언어의 차이를 알고 독특한 표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당시의 이두사용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白’과 ‘乎乙’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이 깨닫게 해 주었다. 이두학습서에 나온 독음은 보수적인 듯하면서도 당시의 언어현실을 반영했고 이두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그 독음을 기능에 맞게끔 새로이 변용해서 쓰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두학습서에 나온 독법이 보수적이고 투식적이라는 데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제부터는 이두 독법을 단지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했던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이두학습서에 나오는 독법을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고정의, 「이두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口訣研究』 10, 2003.
- 김경아,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근수(편), 『吏讀資料選集』, 아세아문화사, 1975.
- 김승호, 「이두의 전래 독음에 대하여」, 『동남어문논집』 3, 동남어문학회, 1993.
- 김영만, 『儒胥必知의 吏讀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김양진·정경재, 「‘-사옵’ 계열 선어말어미의 공시적 처리 방안」, 『한국어학』 46, 한국어학회, 2010.
- 김유섭, 「국어 어간말 자음군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한별, 「국어의 음운 변화 ‘syV’…>sV’에 대한 재고찰」, 『국어학』 72, 2014.
- 김현주, 「존대법 {-습-}의 역사적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南豐鉉, 『吏讀研究』, 太學社, 2000.
- 朴盛鍾,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박성중, 『朝鮮前期 吏讀 研究』, 역락, 2016.
- 박성중, 「고대 한국어 표기에서의 變體漢文과 吏讀」, 『한국어사 연구』 4, 국어사연구, 2018.
- 박성중, 「吏讀吐의 讀法과 그 한글 讀音 표기에 대한 管見」, 『국어학』 90, 2019.

- 박성종, 「나의 吏讀 연구의 적바림 - 吏讀는 왜 공부하는가?」, 국어사학회 10월 월례발표회 발표문, 2020.
- 배대운, 『역대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2003.
- 서종학, 『吏讀의 歷史的 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4.
- 안병희, 『吏文과 吏文大師』, 국어학연구선서 11, 탑출판사, 1987.
- 안병희, 『國語史 研究』, 文學과知性社, 1992.
- 안병희, 『國語史 文獻 研究』, 신구문화사, 2009.
- 李丞宰,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1992.
- 이용 외(역), 『언어학으로 풀어본 문자의 세계』, 역락출판사, 2017[Henry Rogers.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Approach*. Oxford: Blackwell, 2004].
- 이진호, 「국어 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음운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준, 「경리잡설(經里雜說)의 이두와 독음」, 『口訣研究』 18, 口訣學會, 409~451, 2007.
- 전경목 외 4인, 『유서필지: 고문서 이해의 첫걸음』, 사계절출판사, 2006a.
- 전경목, 「19세기 『儒胥必知』 編刊의 특징과 의의」, 『藏書閣』 15, 2006b.
- 정연숙, 「음절말 자음군 ‘ㅍ’의 발음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재영, 「大韓帝國 時期 西洋人의 吏讀 研究」, 『韓國文化』 22, 1998.
- 조남민, 「17세기 국어의 어간말자음에 대한 형태음소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홍고 테루오,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홍기문, 『리두연구』, 평양조선국 과학원, 1957.
- 홍순혁, 「儒胥必知 小考」, 『한글』 11-3호(제96호), 한글학회, 1946.
- 홍윤표, 「近代國語의 語幹末子音群 表記에 대하여」, 『국어학』, 1987.
- Hulbert, H., B., "The Itu", *The Korean Repository*, Vol 5, No. 2, 1898.

* 이 논문은 2021년 8월 27일에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10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白 and 孚乙 as *Idu* Letters of Hearer Honorific *Ol*

Lee, Yong*

In this paper, it was shown that both 白 and 孚乙 in *Idu* are used to write *ol*. And through this observation, I tried to examine the dynamic appearance of *Idu* readings and what that fact means. To achieve this end, we firstly arranged the readings of 白 and 孚 in the *Idu* learning book, and then examined the semantic and morphological correlations of the notations 白 and 孚乙. Finally, we summarized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them.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both 白 and 孚乙, which denote *ol*, are used in two methods of *ol*₁ and *ol*₂. Firstly, *ol*₁ was used to write hearer honorific prefinal ending. Secondly, *ol*₂ was used to write hearer honorific prefinal ending + ㄷ as a part of ending. There are two reasons why 白 is used in *ol*₁ and *ol*₂. Firstly, it is a custom that has been handed down from object-honorification. Secondly, it is a writing that reflects the intention to show respect by using the ideographic feature of Chinese characters. There were also 白乙 and 孚 as the writing for *ol*. This assumption in this paper was mentioned once or twice in the past, but they have not been thoroughly considered.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s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arguments,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provide a new understanding of *Idu* in future.

[Keywords] *Idu*, 白, 孚乙, hearer honorific prefinal ending, *Idu* reading, *Idu* learning book

* The University of Seoul

